



## 왜 재물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될까?

Why is having a lot of money a concern?

마가복음 10장 17-31절

-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끓어 앓아 문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구멍에 침통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겪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1. 먼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봅시다.
  
  
2. 오늘 한 사람(이하 그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19절입니다. 여기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 이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등장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읽었던 ‘요일4:20, 롬13:9, 요일3:14’과 함께 결부되어 읽어봅시다.
  
  
3. 십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마22:37-40).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20).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레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을 지키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21절에서 말하는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인데,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4.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결부지어 그 뜻을 생각해봅시다.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22)? 그가 근심하며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지갑의 주인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6. 아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 그러나 모든 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삽개오(눅19:5)에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똑같이 무소유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신14:22, 마23:23, 농11:42).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말3:8).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봅시다. (신26:12, 민18:28 참조)
8.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